

의회 인사권 독립 효율적 운영 협력

전주시의회-전주시, 인사운영 업무 협약... 인사·교육훈련·후생복지 등 인사권 전반 관한 내용 담아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맺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정실에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인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 사항은 인사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를 포함한 인사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복무시스템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장의 서약 체결을 통해 효력을 담보하고,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 또 양측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향후 추가 세부적 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를 보완해 가기로 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협약식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

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전주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인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져 올해 1월 13일 본격 시행된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스티커 이용하세요”

전주시, 전자증명 사용 어려운 시민 위해 신분증 뒷면 부착 스티커 제작·배부

2022년 새해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다중이용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증명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전주형 코로나19 예방접종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기로 했기 때문이다.

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당·카페·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접종 완료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QR코드 확인 기기가 비치되지 않은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전자증명서로 접종내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도 접종을 증명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완료 스티커를 제작·배부해 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예방접종 스티커는 전주시에서만 통용되며, 스티커를 남에게 양수·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주형 코로나19 예방접종 스티커는

접종 당일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력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커 부착 후 탈착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됐다. 2차 접종 완료 스티커의 경우 접종 완료 후 14일 이후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며, 3차 접종 완료자 스티커는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전주형 코로나19 예방접종 스티커로 전주 시내 시설 이용 시 어려움이 없도록 스티커 발급을 운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접종 증명 시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선

전주시,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 도입 고속도로 할인카드 기능 포함 시 본인부담금 무료화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가 시작돼 신청한 등록증을 찾으러 동 주민센터에 재차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고속도로할인카드 기능 포함 시 들었던 4000원의 발급비용도 무료화되며, 15일이 걸렸던 소요기간도 7일로 단축돼 발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선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가 도입된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뒤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수령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신청 후 우편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준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뒤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우편 배송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구청과 동 주민센터로 교부되는 과정이 사라져 당초 15일 정도가 걸렸던

소요기간이 7일로 대폭 단축돼 신속성도 높아진다.

여기에 고속도로 할인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요됐던 4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시 자체재원으로 충당, 무료화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료화되면 당초 신청인으로부터 4000원의 부담금을 받아 구청과 시청, 조폐공사계좌로 차체대로 입금해야 했던 절차가 생략돼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 7100여 건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 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발급 편의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복지행정의 방향을 시민밀착형 복지정책에 더욱 집중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예비학교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온두레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예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을 모집한다. '온두레공동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는 전주형 공동체로, 올해는 △디딤단계(1년차) △이음단계(2년차) △희망단계(3년차) △아파트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한 이음단계와 희망단계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공동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공동체 예비학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 대표와 회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이메일(jsc332@jhub.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9321, 932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공동체 예비학교 운영과 더불어 오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올해 활동을 펼칠 온두레공동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삼천그린공원 데크 산책로 새단장

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산책을 위해 삼천그린공원 내 기존 노후 데크 산책로 교체공사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사업비 5600만 원을 투입해 완만한 경사의 데크 산책로 43m를 조성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천그린공원은 기존 노후화된 데크 산책로의 목재 부식과 급경사로 인해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공원 내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김윤상 기자

시는 향후에도 전주시 관내 공원 환경 정비를 위한 내외부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신속한 시설물 보수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